

## 蘇過의 「大人生日」詩에 투영된 蘇軾의 형상 考察 — 유연비어와 관련한 문학적 형상화에 주목하여

전가람\*

### 【목 차】

1. 서론
2. 烏臺詩案과 蘇軾에 관한 유연비어
3. 蘇過의 詩에 보이는 蘇軾의 形像: 聖과 俗의 變奏
4. 詩的 形象化를 통한 유연비어 비틀기, 그리고 坡仙의 탄생
5. 결론

### 【초록】

본고에서는 소식의 계자로 잘 알려진 소과의 시 가운데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며 남긴 「大人生日」의 시 11수를 분석하고, 이들 시에 드러난 부친 소식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오대시안 이후 소식은 유배령을 받고 황주에 안치되는데 이 때 도성에는 소식이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유연비어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 1차 황주 유배 이후 지방관으로 임직하던 소식은 다시금 신법과의 타겟이 되어 해주와 담주에서 2차 유배를 겪게 되는데, 이 기간에도 소식과 관련된 유연비어는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그런데 해주·담주에서의 유배기간 동안 부친 소식과 함께 생활했던 소과의 시를 살펴보면 소식에게 신선의 형상과 목민관의 형상을 부여하였음이 발견된다. 소과의 시 속에서 소식은 비방과 시비가 가득한 속세마저도 초월하여 고도의 정신적 승화를 이루어 낸 신선과도 같은 존재이자, 유배를 오기 전에는 善政을 행하였던 목민관의 형상을 획득함으로써 유연비어에 의해 무력화된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실추되어야 했던 한 개인의 명예를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회복하고자 했던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蘇過, 蘇軾, 烏臺詩案, 坡仙, 東坡仙人, 東坡道人, 形象化

\* 전북대학교 BK21+ 한·중문화 「화이부동(和而不同)」 연구 창의인재양성사업단 박사후과정생  
(dominica85@naver.com)

## 1. 서론

蘇過는 소식의 季子로 잘 알려져 있다. 『宋史·蘇軾傳』에 부기되어 있는 「蘇過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소과는 자가 叔黨이다. 소식이 항주지주를 할 때, 소과는 19세였다. 兩浙路<sup>1)</sup>에서 詩賦로 뛰어났고 禮部試에 응시하였다. 소식이 병부상서를 지낼 때 承務郎을 보좌하는 직책을 맡았다. 소식이 定武를 맡아 다스리다가 英州·惠州·儋耳에 유배되고, 廉州·永州 등으로 옮겨갈 때에 소과가 유일하게 소식을 옆에서 모셨다. 밤이나 낮이나, 춥거나 더운 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가지 몸으로 백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 처음 海南에 갔을 때, 「志隱」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소식이 보고서 “내가 외진 바닷가에 와서도 편안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였다. 소식이 이로 인하여 「孔子弟子別傳」을 지었다. 소식이 常州에서 별세하자 汝州 郟城 峨眉山에서 장례를 치르고, 마침내 潁昌에 거주하였다. 營湖의 陰水 대숲에 기거하면서 그곳을 小斜川이라 명명하고, 斜川居士라 자호하였다.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52세였다. 처음에 太原府 조세감사를 지내고 이후에 潁昌府 郟城縣 지주를 역임하였는데 모두 법령으로 파면되었다. 만년에는 中山府 통관을 지냈다. 저서에 『斜川集』 20권이 전하는데 「思子臺賦」, 「颶風賦」가 세상에 유행하였다. 세상에서 소식을 「大坡」, 소과를 「小坡」라 불렀다. 숙부 소철은 소과를 효자라 칭찬하며 효심이 지극하였다고 하였다. 소철은 “형님께서 해남에 유배되셨을 때, 유일하게 성취감을 느끼셨던 점이 아들 소과가 문장에 뛰어나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sup>2)</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소과는 소식이 惠州·儋州에 유배되었을 때 유일하게 데리고 갔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소과가 남긴 시는 자연스럽게 소식의 유배 생활을 담아내고 있으며 당시 척박한 유배지의 풍토와 문화를 그려낸 시 또한 많다.<sup>3)</sup> 이 가운데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며 남긴 「大人生日」의 시 11수가 있어 눈길을 끈다.<sup>4)</sup>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행정구획을 지칭하는 말이다. 『宋史·地理志四·兩浙路』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路는 행정구획의 명칭으로 宋代에 唐의 道를 고쳐서 路를 두었다. 太宗 때에는 15로, 神宗 때에 24로 늘렸다. 蘇州·越州·杭州 등지가 兩浙路에 속하였다.”
- 2) 『宋史·蘇軾傳』附「蘇過傳」“(蘇)過字叔黨. 軾知杭州, 過年十九, 以詩賦解兩浙路, 禮部試下. 及軾爲兵部尚書, 任右承務郎. 軾帥定武, 謫知英州, 貶惠州, 遷儋耳, 漸徙廉、永, 獨過侍之. 凡生理晝夜寒暑之所須者, 一身百爲, 不知其難. 初至海上, 爲文曰「志隱」, 軾覽之曰: 「吾可以安於島夷矣.」因命作「孔子弟子別傳」. 軾卒於常州, 過葬軾汝州郟城小峨眉山, 遂家潁昌. 營湖陰水竹數畝, 名曰小斜川, 自號斜川居士. 卒, 年五十二. 初監太原府稅, 次知潁昌府郟城縣, 皆以法令罷. 晚權通判中山府. 有「斜川集」二十卷, 其「思子臺賦」、「颶風賦」早行於世. 時稱爲「小坡」, 蓋以軾爲「大坡」也. 其叔嫩每稱過孝, 以訓宗族. 且言: 「吾兄遠居海上, 惟成就此兒能文也.」”
- 3) 이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확인된다. 全芳川, 「蘇過詩歌的地域文化特色」, 西南交通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歐陽莉, 「蘇過詩歌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李景新, 「惠、儋瘴地上的特殊逐臣: 嶺海時期之蘇過論」, 『海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5.06.
- 4) 소식의 유배 기간 중 소과가 남긴 시의 편수는 총 55편이다. 이 가운데 소성1년(1094) 7월-소성4년(1097) 8월까지 쓴 시가 26편, 소성4년(1097) 9월-송녕2년(1103) 동안 남긴 시가 29편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살펴본 「大人生日」 시는 총 11수이며, 작품 편년의 기준 및 원문은 蘇過 撰, 舒星 校補, 蔣宗許·舒大剛 等注,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中華書局, 2012를 따랐음을 밝힌다.

&lt;표1&gt; 蘇軾의 「大人生日」詩와 作詩 시기

편수	시 제목	시기	부친 소식의 나이	부친 소식의 유배지 <sup>5)</sup>
1	大人生日(一封已責被敷天)	1094년	58세	惠州
2	次大人生日(陰功若以物假人)	1094년	58세	惠州
3	大人生日(疇昔東華典秘藏)*2수	1096년	60세	惠州
4	大人生日(天爵名高實)*3수	1097년-1100년 사이	61세-64세 사이	儋州
5	大人生日(勿驚髀減帶圍寬)	1097년	61세	儋州
6	大人生日(未試陵雲白日仙)*2수	1099년	63세	儋州
7	大人生日(七年野鶴困雞群)	1100년	64세	儋州

이후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과는 시 속에서 부친 소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소과의 시 속에서 소식은 神仙(聖)이라는 환상적인 이미지와 함께 牧民官(俗)으로서의 이미지가 혼용·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소과는 왜 부친 소식에게 신선과 목민관이라는 聖과 俗의 상반된 이미지를 부여하였는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대시안 이후 소식은 유배령을 받고 황주에 안치되는데 이 때 도성에는 소식이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유언비어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 그리고 소식은 이에 대해 스스로 글을 써서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헛소문이라고 일축한다.<sup>6)</sup>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유언비어도 유언비어이지만, 홀연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는 유언비어가 생성된 까닭은 무엇인가? 소식의 말처럼 ‘신선’이라는 이미지가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소과가 시를 지어 부친 소식에게 신선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소과 역시 저들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야 할까? 그러나 유배지까지 따라가 소식을 곁에서 모셨던 소과가 부친을 비방하기 위한 유언비어에 함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유배를 겪으면서 소과는 왜 시를 써서 부친 소식에게 ‘신선’ 혹은 ‘목민관’이라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부여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두 이미지가 시 속에서 변주되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소식이 ‘蘇仙’의 이미지를 얻게 된 연유에 대해 정세진(2016)은 원래 ‘소선’은 한나라 때 신선인 蘇耽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후 황정견이 시에서 소식을 ‘소선’이라 칭하는 선례를 만들었고, 당시 황정견의 시를 탐구하였던 14-16세기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소선’이라는 표현을 접한 뒤, 夔仙·소적仙·옥당仙 등으로 변주하여 형상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소식을 소선으로 형상화기 시작한 인물이 황정견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sup>7)</sup>

5) 소식의 유배기간에 따른 유배지를 구분해보면, 1080년 2월-1084년 4월까지 黃州(現 湖北省 黃岡), 1094년 10월-1097년 4월까지 惠州(廣東省 惠陽), 1097년 7월-1100년 6월까지 儋州(海南島)이다.

6) 『東坡志林』 「東坡昇仙」, “今謗我者, 或云死, 或云仙.”

7) 정세진, 「14-16세기 조선과 일본의 蘇軾 관련 詩會와 그들이 공유한 蘇仙의 의미」, 『中國文學』, 제86

필자는 이러한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식을 蘇仙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인물 가운데 아들 소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앞선 연구자가 주목하였던 14-16세기 조선과 일본 문인들 사이에서 형성된 ‘소선’의 이미지가 이미 소식의 생전(유배기간)에 소과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과의 「大人生日」시에 투영된 아버지 소식의 형상을 살펴보고, 소과가 왜 시를 통해 부친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부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친 소식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생성되기 시작한 1차 유배의 결정적 원인이 烏臺詩案인 만큼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유언비어의 생성과 관련한 문학적 형상화의 관점에서 소과가 소식에게 聖(신선)과 俗(목민관)의 상반된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상고해보고자 한다.

## 2. 烏臺詩案과 蘇軾에 관한 유언비어

소식만큼 내직과 외직을 오가며 순탄치 않은 宦途를 걸었던 문인도 없을 것이다. 王水照는 “소식은 일생동안 北宋의 仁宗·英宗·神宗·哲宗·徽宗의 五代 왕조를 거쳤다. 이러한 시기는 가난과 약세의 국면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사회적 위기가 급격히 출현하게 된 시기로 또한 통치계급과 내부정국이 변화와 반복을 거듭하며 여기저기서 黨爭이 출몰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소식 또한 이러한 당쟁에 휩쓸리게 됨으로써 그의 일생은 순탄치 못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소식이 벼슬길 초입으로 들어선 嘉祐·治平 연간의 시기만 제외한다면, 그는 평생 동안 두 번의 내직(熙寧 初/元祐 初)과 두 번의 외직(熙寧·元豐 年間/元祐·紹聖 年間)을 거쳤고, 두 번의 유배(黃州/惠州·儋州)를 겪어야 했다. 그의 정치 생애를 크게 조정(在朝)—외직(外任)—편직(貶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소식의 부침이 심했던 宦途에 대해 축약하여 설명한 바 있다.<sup>8)</sup>

소식의 정치 생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는 ‘오대시안’일 것이다. 회녕 3년(1070), 殿中丞直史館判官院兼判尚書祠部的 벼슬에 있던 소식은 당시 王安石의 주도 하에 시행되었던 新法의 문제점을 극렬히 고발함으로써 新法派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 이에 회녕 4년(1071), 杭州通判에 임명되어 이후 3년 간 항주에서 지방관으로 임직한다.

소식은 「上神宗皇帝書」에서 신법파가 강행하려는 정책의 폐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그는 신법파의 정책을 두고 “사람들은 폐하께서 현재 이것을 강력히 시행하고자 하심을 알고는 반드시 ‘이 법은 이로움만 있고 해로움은 없다.’고 말했을 것이니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듯합니다.”<sup>9)</sup>라거나 “(이러한 정책의 해로움은) 독하여 장복할 수 없는 약과 같아 진기를 해친다.”<sup>10)</sup>, “지금 新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원망과 비방

집, 2016.

8) 王水照 著, 『蘇軾研究』, 河北教育出版社, 1999, p.18.

9) 蘇軾, 「上神宗皇帝書」 “人知陛下欲力行, 必謂此法有利無害, 以臣見, 恐未可憑.”

10) 蘇軾, 「上神宗皇帝書」 “不善養生者, 薄節慎之功, 吐納之效, 上藥而用下品, 伐眞氣而助陽, 根本已危, 無日. 天下之勢與此無. 故臣陛下愛惜風俗, 如護元氣.”

이 함께 이르고 있으니 공론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알 수 있으나, 臺諫들이 서로 돌아보고 말을 못하니 이 때문에 中外에서 실망하고 있다.”<sup>11)</sup>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이후 희녕 7년(1074)부터 희녕 10년(1077)까지 각각 密州와 徐州 등지에서 임직한 소식은 다시 원풍 2년(1079) 湖州知州로 부임하는데 부임하자마자 올린 「湖州謝表」의 한 구절을 문제 삼은 신법파<sup>12)</sup>에 의해 그해 8월, 御史臺에 수감되어 고초를 겪게 된다. 이 사건을 ‘烏臺詩案’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소식은 黃州安置 유배령을 받고 황주에서 약 4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오대시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유배는 황주 유배(1080년 2월 - 1084년 4월)였지만, 이후 章惇(1035-1105)을 중심으로 한 신법파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재차 신법파의 타겟이 된 소식은 惠州·儋州에서의 2차 유배(1094년 10월 - 1100년 6월)를 겪게 된다.<sup>13)</sup> 그런데 소식은 자신이 유배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유언비어가 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내가 예전에 黃州에 유배되었을 때, 증자고(曾鞏)가 臨川에서 모친상을 치르는 도중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 자고가 같은 날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어떤 이는 “이장길(李賀)이 죽을 때처럼 옥황상제가 데려갔다.”고 하였다. 당시 先帝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시고, 측근 蒲宗孟에게 물어보시면서 탄식하셨다고 한다.

이제 海南(儋州)에 유배를 오니, 또 소문이 돌기를 내가 得道한 뒤에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경사에 파다하다고 아들 蘇過가 편지를 보내 알려주었다.

또 오늘 廣州에서 온 이가 말해주기를 그곳 태수 柯述이 말하기를 내가 儋耳(儋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난 뒤에 道服만 남았으니, 아마도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어 날아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입에 셀 수 없이 오르내렸는데, 아마도 태어난 시각이 韓退之와 비슷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중략) 오늘날 나를 비방하는 자들 중에서 혹자는 내가 죽었다고 하고 혹자는 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하니, 한퇴지의 말이 정녕 빈말이 아니로다.<sup>14)</sup>

11) 蘇軾, 「上神宗皇帝書」, “今者, 物論沸騰, 怨讟交至, 公義所在, 亦可知矣. 而相顧不發, 中外失望.”

12) 소식은 당시 “어리석어 시의에 적합하지 않아 신진을 따라가기 어려움을 알아차리시고(知其愚不適時, 難以追陪新進)”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구절을 두고 신법파는 소식이 조정을 우롱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려는 것이라 참소하며 소식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린다. 이 뿐만 아니라 신법파는 소식이 지은 시를 임의로 해석하여 신종 황제에게 고한다. 이에 신종 황제는 이 사건을 심리하라는 명을 내리고, 소식은 어사대에 투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태후 및 여러 원로대신들의 적극적인 구명운동 덕분에 소식은 사형을 면하고 원풍 3년(1080) 2월,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류종목 저, 『소식평전 - 팔방미인 소동파』, 도서출판 신서원, 2005, pp.129-136 참조.

13) 新黨의 章惇, 安燾 등이 요직에 기용된 상황에서 소식 형제는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다. 절충은 앞선 신종의 시정 방침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연호를 ‘紹聖’이라 개정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소식은 「朝辭赴定州論事狀」의 표를 올려 급진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신하들이 가벼이 개혁을 권할까 두렵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원우당인으로서 제1차 공격대상이 된 소식은 2차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해주와 단주에서의 유배 생활은 황주 시절의 연속이자 발전이었다.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 평전』, 돌베개, 2013, pp.232-234 참조.

14) 『蘇軾全集』 「書謗」, “吾昔謫居黃州, 曾子固居憂臨川, 死焉. 人有妄傳吾與子固同日化去, 如李賀長吉死時事, 以上帝召也. 時先帝亦聞其語, 以問蜀人蒲宗孟, 且有歎息語. 今謫海南, 又有傳吾得道, 乘小舟入海, 不復返者. 京師皆云. 兒子書來言之. 今日有從廣州來者, 云: “太守何柯述言, 吾在儋耳, 一日忽失去, 獨道服在耳, 蓋上賓也.” 吾平生遭口語無數, 蓋生時與韓退之相似, (….) 今謗吾者, 或云死, 或云仙. 退之

이처럼 소식은 유배를 갈 때마다 신선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거나 시인 이하처럼 옥황상제가 데려갔다는 소문, 득도하여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 날개가 돌아 날아갔다는 소문 등 여러 유언비어에 시달리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河蕆의 『春渚紀聞』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동과공께서 黃州에 계실 때, 도성에는 홀연히 공께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가득하였다. 신종 황제께서 이 일에 대해 포종맹에게 하문하셨는데 종맹이 아뢰기를 “궁 밖에 이와 같은 소문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께서 수라를 드실 때 탄식을 세 번 하시고 “그가 제주로 인한 곤란함을 겪는구나.”라고 말씀하시고는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심기가 편치 않으셨다.<sup>15)</sup>

이처럼 소식을 둘러싼 유언비어는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는 소문이든,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문이든 모두 소식을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존재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것이었다. 소식 스스로도 “오늘날 나를 비방하는 자들 중에서 혹자는 내가 죽었다고 하고 혹자는 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今謗吾者, 或云死, 或云仙.)”고 할 만큼 이러한 뜬소문이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소식은 신법파의 비방과 참소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가 신법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인가?

이에 대해 정세진(2012)은 소식의 사회문화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얻게 된 봉당 내부에서의 입지 때문에 그가 신법파의 타겟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소식만이 시를 써서 신법파의 정책을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文彦博과 馮京은 낙향이나 좌천을 면한 채, 조정에 남아 왕안석과 지속적으로 대립하였고 사마광·범진·조열도·장방평과 같은 구법파 원로들은 소식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邵雍의 경우, 「無酒吟」<sup>16)</sup>과 같은 시를 지어 ‘新法’이라는 글자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신법 시행 이후 술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풍자하였으나 그는 소식처럼 오대시안과 같은 필화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식의 경우 타고난 문학적 역량으로 인하여 구양수의 뒤를 이어 봉당의 정치적 의론을 문학적으로 구체화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그의 시문은 주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sup>17)</sup>

따라서 그가 시로 인한 필화(烏臺詩案)를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문학적 생산(詩)을 통한 봉당의 결집과 의론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李廌 역시 『師友談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之言, 良非虛耳.”

15) 「公在黃州, 都下忽盛傳公病歿. 裕陵以問蒲宗孟, 宗孟奏曰: “日來外間似聞此語, 亦未知的實.” 裕陵將進食, 因歎息再三曰: “才難!” 遂輟飯而起意甚不懌.” 河蕆 撰·張明華 點校, 『春渚紀聞』, 「裕陵惜人才」, 中華書局, 1983, p.88.

16) 邵雍, 「無酒吟」, “自從新法行, 嘗苦樽無酒. 每月賓月至, 盡日閑相守. 必欲丐於人, 交親自無有. 必欲典衣買, 焉能得長久.”

17) 정세진, 「烏臺詩案의 社會文化적 含意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106-108.

동파는 “문장의 책무는 또한 명망있는 선비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데에 있으니 그렇게 한다면 도는 실추되지 않을 것이다. (….) 구양 문충공께서 나에게 이러한 임무를 넘겨주셨으니 나는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sup>18)</sup>

이러한 李廌의 기록 역시 소식이 의론을 생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구법과 사대부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핵심 역할을 하였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소식은 황주에 귀양 온 지 3년째 되는 해(1083)에 다음과 같은 詞를 지어 자신의 술회를 밝히고 있다.

夜飲東坡醒復醉,	밤에 東坡에서 술에서 깨었다가 다시 취했다가
歸來仿佛三更.	돌아오니 삼경쯤 되었던 듯하네.
家童鼻息已雷鳴.	시종아이 코골이 소리 천둥소리 같네.
敲門都不應,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는 사람 없어
倚杖聽江聲.	지팡이 잡고 흘러가는 강물 소리만 들었네.

長恨此身非我有,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길고 긴 한스러움
何時忘却營營.	언제쯤 아등바등 사는 것을 잊으려나.
夜闌風靜縠紋平.	한밤중 바람 고요하고 수면은 잔잔하네.
小舟從此逝,	작은 배를 타고 이곳에서 멀리 떠나
江海寄餘生. <sup>19)</sup>	강해 <sup>20)</sup> 에서 남은 생을 보내리라.

소식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此身非我有)”라고 표현한 구절을 통해서도 이미 소식의 인생은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한 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은 소식이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 구법과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여러 문인들의 의론을 조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강해로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小舟從此逝, 江海寄餘生)”는 심정을 표출한 탓인지 소식은 “득도하여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又有傳吾得道, 乘小舟入海, 不復返者)”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다.

18) 李廌, 『師友談記』 “東坡嘗言, 文章之任, 亦在名世之士, 相與主盟, 則其道不墜. (….) 昔歐陽文忠常以是任付與某, 故不敢不勉. 異時文章盟主, 責在諸君, 亦如文忠之付授也.”

19) 蘇軾, 「臨江仙·夜飲東坡醒復醉」

20) 은자가 거처하는 곳을 이른다. 『莊子·刻意』편에 “이것(無爲)은 강해의 선비와 세상을 피해 온 한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此江海之士, 避世之人, 閒暇者之所好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 3. 蘇過的 詩에 보이는 蘇軾의 形像: 聖과 俗의 變奏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과는 소식의 惠州·儋州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유일하게 옆에서 부친을 모신 인물이자, 부친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직접 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소과가 부친의 생일을 맞이하여 쓴 「大人生日」시를 살펴보면, 부친 소식에게 신선이라는 이미지와 목민관이라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부여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21)</sup> 그러면 지금부터 소과의 시에 나타난 소식의 형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살펴볼 시는 소과가 부친 소식의 58세 생일을 축하하며 남긴 시이다.

「大人生日」<sup>22)</sup>

一封已責被敷天,	한 번 관직에 봉해지고 나면 그 책임 하늘을 덮을 정도로 막중하니
十萬飢民粥與饘,	굶주리는 십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면,
不待丹砂錫難老 <sup>23)</sup> ,	(부친께서는) 丹砂를 기다리지 않고도 영원한 장수를 하사받으셨으니
自憑陰德享長年.	스스로 陰德에 기대어 장수를 누리시리라.
壽條固已占黃髮,	壽條로도 이미 장수하시리라는 것 짐쳐볼 수 있으니 <sup>24)</sup>
珠火還應養寸田.	구슬처럼 빛나는 눈으로 心田 <sup>25)</sup> 을 가꾸신다네.
況是玉皇香案吏,	하물며 가까이에서 옥황상제 모시는 분이니 <sup>26)</sup>
御風騎氣本冷然.	바람 타고 가볍게 다니신다네.

21) 앞서 소식이 유언비가 떠돈다고 기술한 시점은 황주 유배와 담주 유배 때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해주 유배는 유언비어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소식과 관련된 유언비어는 이미 황주 유배 때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여 담주 유배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1차 유배와 2차 유배 사이에는 십여 년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해주와 담주에서의 유배 생활은 황주 유배 생활의 연속이었다.(앞의 책, 『소동과 평전』, p.234.) 1차 유배와 2차 유배의 직접 원인이 되는 사건은 다를 지라도 두 유배의 성격은 분명 동질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과가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부친의 인생궤적을 재조명하고, 정치적 유언비어로 인해 매몰된 부친의 존재감을 회복하고자 했던 취지는 충분히 해주 유배시기에 쓴 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22) 紹聖 元年(1094) 12월 19일에 지은 것이다. 蘇軾이 惠州로 폄직되어 맞이한 첫 번째 생일이다.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앞의 책, p.27.

23) 難老是 長壽를 뜻한다. 『詩經·魯頌·泮水』에 魯侯를 송축하기를 “이미 좋은 술을 드셨으니, 영원히 늙지 않음을 하사합니다.(既飲旨酒, 永錫難老.)”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4) 중국 五代時期에 紫微門數를 발명한 陳希가 관상의 대가였던 麻衣로부터 전수받은 祕傳을 기록하였다는 『石室神異賦』에 따르면 ‘壽條’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목 아래에 두 가닥 줄 같은 것이 생기면 失運을 당하여도 오히려 건강하게 된다. 노인에게 이러한 줄이 있으면 失運을 당하여서도 또한 흉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하고 길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에 이르기를 ‘壽眉가 耳毫만 못하고, 耳毫가 壽條만 못하다.’고 하였다.(雙條項下, 遇休因而愈見康強. 老人有此條, 遇休因亦不爲凶, 愈見康吉. 故經云: ‘眉絕不如耳毫, 耳絕不如項下壽條.’)” 또한 ‘黃髮’은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가 다시 누런빛을 띠는 것으로 장수한 노인을 뜻하는 말이다.

25) 寸田은 道教語로 三丹田이라고도 한다. 마음을 가리킨다.

26) ‘香案吏’는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뜻이다. 香案은 본래 대궐 안의 향로나 촛대 옆에 놓아두는 책상을 가리키는데, 이로 인하여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侍從臣이 있는 곳을 가리키게 되었다. 『新唐書·儀衛志上』



시의 전반부에서는 유배를 오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음덕을 쌓은 목민관의 이미지가, 시의 후반부에서는 유배를 온 이후에 옥황상제를 측근에서 모시는 신선으로서의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목민관과 신선 이미지 사이에 연관성이 발견되는데,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펼친 공로에 따라 「長壽」를 누리는 불사의 존재가 됨으로써 옥황상제를 모시는 신하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같은 해, 「大人生日」시를 차운하여 지은 「次大人生日」시를 살펴보자.

「次大人生日」<sup>27)</sup>

陰功若以物假人,	陰功은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과 같으니
酬而不酬非所聞.	권하기만 하고 응대하지 않는다는 법도 들어보지 못했다네. <sup>28)</sup>
丙吉于公德在民,	병길과 우공 <sup>29)</sup> 의 덕은 백성들에게 있고
皇天祐善初無親.	하늘은 선한 자를 돕나니 애초에 사사로이 편애하는 법 없다네.
自我高曾逮公身,	나의 고조부와 증조부, 아버지께서는
奕世載德一於仁.	대를 이어 德을 밝히시고 仁에 한결같으셨다네.
遇苦即救志劬辛,	고통스러운 이를 만나면 즉시 구제하셨으니 그 뜻이 고되셨고
豈擇富貴與賤貧.	어찌 부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가려서 대하셨으리오.
久推是心誠而均,	오래도록 이 마음 미루어 정성스럽고 한결같이 행하셨으니
可貫白日照蒼旻.	백성을 비추는 태양처럼 따듯하고 은혜로우셨다는 것 알 수 있다네.
譬如農夫耘耔勩,	비유컨대 농부가 밭을 갈면
自有豐年穫千畝.	풍년에 수확한 벼처럼 (仁德이) 절로 풍성해지는 것과 같았다네.
公何屢困蠅與蚊,	부친께서 어찌 파리와 모기 때문에 곤란하셨으리오
身雖厄窮道益信.	비록 몸은 곤궁함에 처하셨으나 도는 더욱 신실해지셨네.
天不俾之爵祿新,	하늘은 부친께 새로운 벼슬 내려주지 않았으나
琢磨功行真人鄰.	功行을 갈고 닦아 真人 <sup>30)</sup> 과 짝하도록 하셨네.
直言便觸天子嗔,	울곧은 말씀 천자의 심기를 건드려
萬里遠謫南海濱.	멀고 먼 남쪽 바닷가로 귀양을 오게 되셨네.
朝夕導引存吾神,	하루 종일 導引法 <sup>31)</sup> 으로 나의 정신을 보존한다 하셨으니

27) 紹聖 元年(1094) 12월 19일에 지은 「大人生日」의 시를 차운한 시이다.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앞의 책, p.47.

28) 『儀禮·士冠禮』 鄭玄注: “酌만 하고 酬酢이 없는 것을 醺라 한다.(酌而無酬酢曰醺.)”는 구절이 보인다.

29) 丙吉은 漢武帝 때 명제상 병길을 말한다. 宣帝가 병길을 博陽侯에 봉하였는데 병길이 병이 위중하여 자리에 눕고 말았다. 宣帝가 병길이 영영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하자 太傅였던 夏侯勝이 “병길은 일어날 것입니다. 신이 듣기에 음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자손에까지 미친다 하였습시다. 지금 병길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과연 이후에 병길은 병이 나았다는 고사가 『漢書』에 보인다. 우공은 한나라 于公을 가리킨다. 우공이 음덕을 많이 쌓고 집을 지으면 대문을 높고 크게 만들면서 “내 자손 중에 반드시 귀한 자가 날 것이니 駟馬와 높은 일산 [蓋] 이 출입할 만큼 문을 크게 만든다.”라고 하였다. 이후에 과연 于定國이 나와 벼슬이 廷尉에까지 이르렀다는 고사가 전한다.

30) 老子가 서쪽으로 길을 떠나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關令 尹喜가 누대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다가 자색 기운 [紫氣] 이 관문 위로 떠 오는 것을 살피고는 분명히 真人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다. 과연 얼마 뒤에 노자가 푸른 소를 타고 왔다는 고사가 『列仙傳上·關令內傳』에 보인다.

31) 도가에서 장생불사하기 위해 수련하는 방법을 말한다.

兩儀入腹如車輪.	陰陽의 조화로 부풀어 오른 배 수레바퀴 같았네. <sup>32)</sup>
羅浮至今餘怪珍,	羅浮山에는 지금도 기이하고 진귀한 것들 남아있고
稚川藥竈隱荊樺.	도사 갈홍이 선약을 제조하던 주방은 가시나무로 덮여 있다네.
飛騰澗谷不可馴,	계곡 사이를 날아다니듯 다니실 때면 길들일 수 없을 것만 같았고
有道或肯來相賓.	도를 닦는 이가 찾아왔다가 우연히 친해지면 서로 어울리셨네.
區區功名安足云,	구차하게 공명을 따지면서 어찌 만족스럽겠느냐고 하시며
幸此不爲世俗醺.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 삶을 다행스러워 하셨네.
丹砂儻結道力純,	丹砂 <sup>33)</sup> 는 道力 더욱 깊어지게 하리니
冷然御風歸峨岷.	바람 타고 가볍게 峨眉山과 岷山으로 돌아가시리라. <sup>34)</sup>

시의 첫 구절에서 소과는 음공을 쌓으면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하였다. 이어 다음 구절에서 漢武帝 때 음덕을 쌓아 명재상으로 칭송되었던 丙吉의 고사와 역시 한나라 때 음덕을 많이 쌓아 후손이 높은 벼슬에 이르게 되었다는 于公의 고사를 들어 부친 소식 역시 지방관으로서 음덕을 쌓은 목민관이었음을 강조한다.

시의 중반부에서는 집안 대대로 德과 仁을 밝히는 데 힘썼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각각 따듯하게 비추는 태양과 풍년에 수확한 벼에 비유함으로서 선한 행위를 무한히 실천하였음을 밝힌다. 다음 구절에서 소과는 소식을 참소하고 꺾는 이들을 각각 ‘파리와 모기(蠅與蚊)’에 비유하였는데 오히려 이들 덕분에 부친이 “비록 몸은 곤궁함에 처하셨으나 도는 더욱 신실해지는(身雖厄窮道益信)”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새로운 벼슬을 거둬하며 얻는 명성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지만 “功行을 같고 닦아 真人과 짝하도록 하는(琢磨功行真人鄰)” 고도의 정신적인 경지를 추구하는 길이었음을 밝힌다.

계속해서 소과는 부친 소식이 직언을 함으로써 천자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귀양을 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회녕-원풍 시기의 신당과 인물들이 철종 때 다시 요직에 기용됨으로써 겪게 된 2차 유배를 말한다. 앞서 황주에 유배된 바 있는 소식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해주와 담주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친이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도가의 정신적 수련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소식이 도가의 양생술에 깊이 관심과 흥미를 보여 몸소 체험한 사실은 그의 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32) 원문의 ‘양의’란 음과 양을 가리킨다. 『周易·繫辭傳上』에 “그러므로 역에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是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는 내적 수련으로 공행을 쌓아 몸 안에 음양의 조화를 도모하는 도교의 ‘內丹學’을 가리킨다.

33) 도사 갈홍이 혼란한 세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交趾에서 丹砂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句漏令으로 자청하여 鍊丹을 했다는 고사가 『晉書·葛洪列傳』에 보인다.

34) 소식의 「書丹元子所示李太白眞」이라는 시에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太白山과 가로놓인 峨眉山,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 四海에 아무도 없다네.(西望太白山橫峨岷, 眼高四海空無人.)”라는 구절이 보인다. 李白 역시 「蜀道難」이라는 시에서 “서쪽 太白山으로 난 새들의 길 [鳥道] 로만 峨眉山 꼭대기를 질러갈 수 있다네.(西當太白有鳥道, 可以橫絕峨岷巔.)”라고 읊은 바 있다.

35) 실제로 『東坡志林』에는 「養生說」, 「樂天燒丹」, 「辟穀說」, 「記養黃中」 등 소식이 도가의 양생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과 이론을 기록으로 남긴 문장이 많이 확인된다. 소식 저, 김용표 역, 『동파지림』, 세창, 2012, p.127, 157, 168, 174.

마지막으로 소과는 귀양을 오게 된 부친의 삶이 오히려 “구차하게 공명을 따지지 않은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부친을 바람을 타고 峨眉山과 岷山으로 돌아가는 도력 깊은 신선에 비유함으로써 초월적이고 문학적인 존재로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시는 소과가 부친의 60세 생신을 맞아 남긴 시이다.

「大人生日」<sup>36)</sup>

疇昔東華典秘藏,	옛 仙人 東華는 祕閣에 名簿를 숨겨두었는데 <sup>37)</sup>
於今晦暖水雲鄉.	지금 水雲鄉 <sup>38)</sup> 은 감감하기만 하네.
欲知萬里雷霆譴,	천둥 같은 황제의 위엄 <sup>39)</sup> 으로 만 리 밖 귀양 온 사람 알고 싶거든
要與三山咫尺望.	지척의 三神山 <sup>40)</sup> 을 바라보게나.
世上功名那復記,	속세의 공명과 관계된 일 어찌 다시 기록하리오
洞中仙籍已難量.	동굴 속 신선들의 책조차 이미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데.
仇池何用追仙馭,	仇池 <sup>41)</sup> 까지 올라 신선의 학 쫓을 필요 뭐가 있을까
香案仍歸侍玉皇.	궁궐에서 천자를 모시다가 돌아와 옥황상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二)

窮寓三年瘴海濱,	장기 가득한 바닷가에서 가난하게 지내신지 삼년 췌 <sup>42)</sup>
筆瓢陋巷與誰鄰.	누추한 사람 <sup>43)</sup> 과 누가 이웃하려 하겠는가?
維摩示病原非疾,	(그러나) 유마거사가 병을 보인 까닭은 정말로 병이 나서 그런 것 아니고 <sup>44)</sup>

36) 이 시가 지어진 시기에 대해 王文誥(1764~?)는 紹聖 三年(1096) 12월 19일이라고 보았고, 翁方綱(1733~1818)은 소식이 海南(儋州)에 폄적되었을 때 지은 것이라 하였다. 본고에서는 왕문고의 설을 따르기로 한다.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앞의 책, 2012, p.86.

37) ‘동화’는 전설상의 仙人 東王公을 가리킨다. 이 시에서 ‘동화’라 한 것은 그의 별칭이 ‘東華帝君’이었기 때문이다. ‘비각’은 서책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동화선인이 男仙들의 名簿를 관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38) 은자가 사는 맑고 그윽한 곳을 가리킨다.

39) 황제의 위엄을 천둥(雷霆)에 비유한 것이다.

40)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사는 산의 이름이다. 『史記·秦始皇本紀』에 제나라 사람 徐市이 진시황에게 글을 올려 “바다 가운데에 삼신산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蓬萊, 方丈, 瀛洲인데 그곳에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41) 중국 甘肅省 成縣 서쪽에 있는 산으로 일명 瞿堆, 萬頃山이라고도 부른다. 이 시에서 말하는 ‘구지’는 이 산의 꼭대기에 있다는 연못이다. 일찍이 소식은 「和陶桃花源詩序」에서 “공부 시랑 왕흥신 중지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구지산을 지나다 보니, 아흔아홉 개의 샘이 있고 수많은 산들이 빙 둘러싸고 있어 마치 도화원처럼 난세를 피해 은거할 만하더라.’”라고 하였다.(工部侍郎王欽臣仲至謂予曰: 吾嘗奉使過仇池, 有九十九泉, 萬山環之, 可以避世如桃源也.)”고 기록하고 있으며, 「次韻晁無咎學士相迎」에서는 “꿈 속 구지산의 천 길 압벽이, 나를 푸른 안개 장막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네.(夢中仇池千仞巖, 便欲攬我青霞幘.)”라고 읊은 바 있다.

42) 소식이 소성 원년(1094)에 해주로 폄적된 이후 햇수로 3년째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다.

43) 『論語·雍也』 편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말한 것이다. “어질도다, 안회여!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곳에 거처하며 산다면, 다른 사람은 그 근심을 견디어내지 못하거늘 안회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어질도다 안회여!(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

44) 유마거사가 병을 얻을 일이 없는데도 자신의 몸에 병이 났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임금과 대신, 바라문들과 왕자 등 수천 명이 와서 유마거사의 병을 위문하였다. 유마거사는 몸에 병이 난 것을 인연으로 널리 중생에게 법문을 전파하여 구제할 수 있었다고 진한다.

原憲雖貧豈是貧.      원헌<sup>45)</sup>이 비록 가난하다 한들 진실로 가난한 것이겠는가?  
 紡嫗固嘗占異夢,      길쌈하는 노파(紡嫗) 일찍이 기이한 꿈 해몽하였으니  
 肉芝<sup>46)</sup>還已獻畸人.      영험한 두꺼비를 畸人<sup>47)</sup>에게 바친 꿈이었다지.  
 世間出世何由並?      인간세상에서 출세하는 일 무엇 때문에 겹하리오?  
 一笑榮枯等幻塵.      한바탕 웃고 나니 영고성쇠가 모두 환상과 티끌인 것을.

시의 첫 구절에서 예로부터 男仙들의 명부를 관장하였다고 알려진 전설 속 ‘東華仙人’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부친 또한 신선의 반열에 들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다음 구절에서는 ‘萬里雷霆譴’라는 구절을 통해 부친 소식이 철종을 위시한 신법파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을 오게 되었음을 은근히 피력하였다. 뒤이어 부친이 속세의 공명을 떠나, 신선들의 책에 기록되리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속세의 천자를 보필하던 신분에서 천상의 옥황상제를 보필하는 신분이 되었음을 부각시킨다.

제2수에서는 속세에서의 부친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1구와 2구에서 유배를 온 뒤, 궁핍하게 살아가야 했던 부친의 생활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다시 3구와 4구를 통해 중생에게 법문을 전파하기 위해 병이 났다고 소문을 내었던 유마거사와 가난함마저도 편안하게 여겼던 자사의 고사를 인용하여 부친의 신세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뒤이은 구절에서는 만 년을 살아가는 두꺼비(肉芝)와 하늘과 짝하여 살아가는 畸人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여 소식을 다소 환상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인간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이 모두 ‘환상과 티끌(幻塵)’임을 깨달은 道人으로서의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계속해서 다음 시를 살펴보자.

「大人生日」<sup>48)</sup>

天爵名高實,      천자께서 내리신 작위는 명예와 봉록이 높건만

45) 가난함을 편안히 여겼던 공자의 제자 원헌(자사)을 가리킨다. 『莊子·讓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원헌(자사)이 노나라에서 움집 같은 오두막(環堵)에서 가난하게 살 때, 동문수확한 자궁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수레를 타고 찾아가 그의 누추한 행색과 거처를 보고 ‘아, 선생께서는 어찌 하여 이처럼 괴롭게 사십니까?(噫, 先生何病)’라고 하자 원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재물이 없는 것은 가난하다고 하고, 배우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가난할 뿐 괴롭지는 않습니다.(憲聞之, 無財謂之貧, 學而不能行謂之病. 今憲貧也, 非病也.)’라고 답하였다.

46) 도가에서 말하는 영험한 두꺼비를 가리킨다. 『抱朴子·內篇·仙藥』 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肉芝란 만 년 된 두꺼비인데, 머리 위에 뿔이 있고 턱 밑에 丹書 여덟 자가 겹으로 쓰여 있다. 5월 5일 日中에 잡아서 음지에서 100일 동안 말려서 왼쪽 발로 땅에 그으면 물이 흐르고, 왼쪽 손을 몸에 휴대하면 군사를 막을 적에 적이 화살을 쏘면 제 몸으로 되돌아간다. (...) 이것을 음지에 말려 가루를 만들어 먹으면 만 년 장수를 하게 된다.(肉芝者, 謂萬歲蟾蜍, 頭上有角, 額下有丹書八字再重. 以五月五日日中時取之, 陰干百日, 以其左足畫地, 卽爲流水, 帶其左手於身, 闕五兵, 若敵人射乙者, 弓弩矢皆反還自向也……陰干末服之, 令人壽四萬歲.)”라고 하였다.

47)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莊子·大宗師』에 “기인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하늘과는 짝이 되는 사람이다.(畸人者, 畸於人而侔於天.)”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시에서는 참소로 인하여 귀양을 오게 된 부친 소식을 畸人에 비유한 것이다.

48) 다른 시들에 비해 작시 연도가 다소 모호하다. 다만 『宋史·蘇軾列傳』을 살펴보면 “又貶瓊州別駕, 居昌化. 昌化, 故儋耳地, 非人所居, 藥餌皆無有. (...) 獨與幼子過處, 著書以爲樂.”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시의 정황상 海南(儋州) 유배기간에 지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앞의 책, p.122.

□□□自分. □□□ 安分自足하시네.<sup>49)</sup>  
 云何困積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곤경을 겪는 것이냐” 하시니  
 抑未泯斯文. 어찌 斯文이 泯滅되어 그런 것이 아니리오.  
 欲救微言絕, 성현의 은미한 말씀 구제하고자 한다면  
 先懲百氏紛. 먼저 분분히 나뉜 의론부터 정벌해야 하리라.  
 韋編收斷簡, 끊어진 죽간을 가죽 끈으로 다시 묶고  
 魯壁出餘焚. 공자의 집 벽에서 焚書를 면한 경전을 꺼내야 하리라.  
 論斥諸儒陋, (아버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諸儒들 논하여 배척하셨으니  
 功逾絳帳勤. 부지런히 絳帳<sup>50)</sup> 펼친 馬融 보다 공이 더욱 뛰어나시네.  
 吾庸亦多矣, “나는 재주가 없어 또한 많이 할 뿐이다”라고 하셨으니  
 奚恤彼猜猜. 昭奚恤<sup>51)</sup>과 같은 저들이 으르렁대곤 하였네.

(二)

天定人勝難, 하늘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고통을 준다는  
 誠哉申子言. 申子<sup>52)</sup>의 말은 정녕 사실이었네.  
 不須占倚伏, 점을 쳐 禍福의 기미를 엿볼 것 없다 하시며  
 久已恃乾坤. 오래도록 하늘과 땅을 믿으셨네.  
 八郡袴襦德, 八郡<sup>53)</sup>에서 베푸신 善政을 칭송하는 노래소리<sup>54)</sup>  
 三吳肉骨恩. 三吳<sup>55)</sup>의 백성들 다시 태어난 듯 은혜롭다고 하였네.  
 少卿真不病, 陰德 쌓은 少卿<sup>56)</sup>은 진실로 병에 걸려도 죽지 않았고  
 廷尉自高門. 廷尉<sup>57)</sup> 역시 스스로 대문을 높여 자손에게 복이 전해지길 바랐네.

- 49) 이 구절의 세 글자를 알 수 없어 비록 온전한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위 구절과의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自分’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편안히 살아가는 ‘安分自足’의 의미가 아닌가 한다.
- 50) 스승의 講席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후한의 馬融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高堂에 앉아 붉은 비단 휘장을 드리웠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後漢書·馬融列傳』
- 51) 『戰國策·楚策』에 나오는 昭奚恤을 가리킨다. 魏나라 출신 江乙이라는 辯士가 楚宣王 밑에서 벼슬을 할 때 초나라에서는 소해홀이 정권과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루는 초선왕이 여러 신하들이 있는 데서 “모든 나라들이 소해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라고 물으니 강乙이 일어나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무서워하는 것은 실은 그 여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있는 호랑이를 두려워해서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소해홀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임금님의 무장한 군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狐假虎威의 고사는 유명하다.
- 52)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대부 申包胥를 가리킨다. 이 때 오나라 군사가 초나라 군을 함락시켜 진나라로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신포서가 대궐의 뜰에서 7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울었는데 秦哀公이 감동하여 군사를 보내 초나라를 구해 주었다는 고사가 『春秋左氏傳·定公4年』조에 보인다.
- 53) 소식이 출사하여 다스린 密州, 徐州, 湖州, 登州, 杭州, 潁州, 揚州, 定州의 여덟 고장을 가리킨다.
- 54) 고을의 수령이 善政을 베푸는 것에 대해 백성들이 칭송하는 노래인 袴襦歌를 말한다. 後漢 때 화제를 예방하기 위해 밤에 불을 피우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겼는데, 廉范이 蜀郡太守가 되어 불 피우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들이 편하게 여겨서 “염속도가 온 것이 어찌 이리 늦었는가. 불 피우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편안하네. 평생토록 속옷 없다가 지금은 속바지 다섯 벌이네.(廉叔度, 來何暮, 不禁火, 民安作, 平生無襦今五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後漢書·廉范列傳』에 보인다.
- 55) 현재 중국 절강 내에 있는 吳興, 吳郡, 會稽의 세 지역을 말한다.
- 56) 少卿은 한 무제 때 명재상이었던 丙吉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30) 참조.
- 57) 한나라 우공이 獄을 다스리는데, 음덕을 많이 쌓고 집을 지으면 대문을 높고 크게 만들면서 “내 자

勿歎乘桴遠,      뗏목을 타고 멀리 나아가지 못함을 탄식하지 말고  
當知出世尊.      마땅히 세상에 나와 도를 행하는 존귀함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네.  
無邪有妙理,      사특함은 사라질 것이요, 오묘한 진리는 길이 남는다는  
一悟可長存.      한바탕 깨달음, 길이 보존할 만하리라.

## (三)

大士來淮泗,      大士(東坡)께서 淮水를 건너실 때 泗州佛의 비호를 받으신 뒤<sup>58)</sup>  
神交寤寐中.      자나 깨나 정신적 交融을 바라셨네.  
應緣濟物意,      응당 濟物의 뜻과 인연 맺었으니  
豈爲寫經功.      어찌 경전 베끼는 데 공을 들일까.  
惻隱仁之本,      惻隱之心은 仁의 근본이니  
慈悲佛所同.      불가에서 말하는 慈悲 역시 같은 이치라네.  
雖無逮焚溺,      비록 불에 타고 물에 빠지는 고통을 당하지는 않으셨지만  
尚欲起疲癯.      병들고 노쇠한 육신 일으켜 세우고자 하셨네.  
五鼎榮何有?      五鼎食<sup>59)</sup>의 영예는 어디에 있는가?  
三光路已通.      三光<sup>60)</sup>의 길 이미 통달하셨다네.  
回看種桃處,      고개 돌려 복숭아꽃 피었던 곳 바라보니  
葵麥卷春風.      들풀과 잡초만 봄바람에 흔들리네.<sup>61)</sup>

제1수에서는 부친 소식의 유학자로서의 형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소과가 시 속에서 “斯文

손 중에 반드시 귀한 자가 날 것이니 사마와 높은 일산 [蓋] 이 출입할 만큼 문을 크게 만든다.”라고 하였다. 이후에 과연 于定國이 나와 벼슬이 廷尉에까지 이르렀다.

- 58) 吳曾, 『能改齋漫錄』 卷18 「泗州大聖送東坡過海」 鄒志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嶺外에서 혜주대수 방군을 보았는데 아내 素奉佛에게 “(내가) 어느 날 꿈을 꿔는데 泗州佛(중국 민간신앙에서 혼인을 주재한다는 신선)이 와서 장차 소자침이 바다를 건널 것이니 (내가) 송별할 것이다.”라고 하니 그의 아내가 힐난하면서 “며칠에 떠난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8일에 떠날 것이요.”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의 말처럼 8일에 떠났습니다.」 이에 詩僧 參寥가 시를 지어 “淮水에 임하여 대사께서는 본래 사사로운 마음 없었건만, 사물이 응답하여 험난한 상황에 은혜를 베풀고 친히 남해를 건너는 배를 보호하였으니, 공의 성덕이 완전히 쇠한 것이 아님을 알겠네.”라고 하였다.(鄒志完(鄒浩)言: “在嶺外, 見惠州太守方君(子容), 謂其家人素奉佛, 一旦夢泗州大聖來別曰: ‘將送蘇子瞻過海.’ 遂詰之曰: ‘幾時當去?’ 曰: ‘八日去.’ 果如所言.” 故參寥以詩志之曰: “臨淮大士本無私, 應物長於險處施. 親護舟航渡南海, 知公盛德未全衰.”)

- 59) 장부가 생전에 소, 양, 돼지, 생선, 사슴을 술에 삶아먹는 것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속세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 60) 불가에서 말하는 少光天, 無量光天, 光陰天의 ‘三天’을 가리킨다.

- 61) 回看…春風: 당나라 시인 劉禹錫의 고사를 말하는 것이다. 유우석이 일찍이 朗州司馬로 폄적되었다가 10년 만에 풀려나 돌아와 보니, 그 동안에 한 道士가 玄都觀에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서 복숭아꽃이 성대하게 피어있었다. 그 꽃을 구경하던 유우석이 「自潮州至京戲贈看花諸君」이라는 시를 지어 “도성 거리 뒤편 먼지가 얼굴을 스치는데, 꽃구경 간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현도관 안에 복숭아나무 일천 그루, 모두가 이 유랑(내가)이 떠난 뒤에 심은 거라네.(紫陌紅塵拂面來 無人道看花回 玄都觀裏桃千樹 盡是劉郎去後栽)”라고 하였다. 이후 유우석은 이 시가 當路者를 비난했다는 혐의를 받아 다시 播州刺史로 폄적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14년 뒤에 돌아와 다시 현도관을 찾아가 보니, 복숭아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오직 잡초만 무성하였다. 그 광경을 보고 유우석은 다시 「再遊玄都觀」이라는 시를 지어 “백민정 안이 절반은 푸른 이끼로 덮였고, 복사꽃은 씻은 듯 사라지고 들꽃만 피었네. 복숭아나무 심은 도사는 어디로 갔는가, 예전에 왔던 유랑이 지금 다시 왔는데.(百敏庭中半是苔 桃花淨盡菜花開 種桃道士歸何處 前度劉郎今又來)”라고 하였다.

이 泯滅”되었기 때문이라고 일갈한 구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周 文王의 뒤를 이어 禮樂과 制度의 흥기에 힘썼으나 천하를 주유하면서 곤궁함을 겪어야 했던 孔子<sup>62)</sup>의 형상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소식은 불교나 도교 못지않게 儒道에 해박<sup>63)</sup>하였다. 이에 소과는 유학의 본령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魯壁出餘焚)을 주장한 부친의 공이 마옴보다 뛰어난을 지적하는 한편 여전히 부친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지닌 세력(奚恤彼猜猜)이 있었음을 역설한다.

제2수에서는 백성들에게 덕을 베푼 목민관으로서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소식이 뛰어난 재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으나, 또한 密州·徐州·湖州·杭州 등지의 知州로 있으면서 쌓았던 치적으로 인하여 그 음덕이 후세에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축원한다. 아울러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날 것”<sup>64)</sup>을 생각할 게 아니라 세상에 나와 도를 실천하고자 하였던 부친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소식이 세상을 피해 은둔하려 했던 게 아니라, 올바른 유교의 정신으로 邪道를 배격하고 근본을 세우고자 하였음을 피력한다.

앞서 소식이 儒道에 해박하였음을 피력한 소과는 제3수에서는 소식이 또한 불교와 도교에도 통달하였음을 설파한다. 아울러 소식이 유가에서 말하는 ‘惻隱之心’과 불가에서 말하는 ‘慈悲’가 서로 상통하는 교리임을 지적한 사실을 언급하여 儒道 이외의 다른 교리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融會貫通하였음을 밝힌다. 다음의 시는 부친의 61세 생신을 축하하며 쓴 시이다.

「大人生日」<sup>65)</sup>

勿驚脾減帶圍寬,	수척해져 허리에 두른 끈 <sup>66)</sup> 이 한참이나 남는다고 놀라지 마시게
壽骨嶮然正隱顚.	피골이 상접하여 날카로워도 정정한 광대를 숨기고 계신다네.
不待期頤祝難老,	영원히 장수하라는 축원 기다리지 않으셨고
固知穗蓂自豐年.	북돋은 이삭보시며 절로 풍년이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네.
僵松再薦千齡葉,	쓰러진 소나무에서 다시 천년의 잎사귀 울창하게 피어나고
智井新飛百尺泉.	마른 우물에서 백 척의 샘물 솟아나리라.
坐想山神無伎倆,	가만히 생각하노니 山神은 편법을 쓰지 않을 테니
欲應造物報其天.	조물주의 뜻에 응하고자 한다면 하늘도 보답하리라.

62) 『論語·子罕』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공자께서 匡에서 경계심을 품고 계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文王이 이미 별세하셨으니, 文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장차 이 文 [斯文]을 없애려 하셨다면 뒤에 죽는 사람이 이 文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文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으니, 匡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子畏於匡, 曰: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63) 남송 2대 황제인 효종은 蘇學을 애호하고 선호하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효종의 전체적인 학문관과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가 儒學의 본령이라 믿었던 治世의 방면에 소식의 經世論이 보탬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석희, 「南宋 孝宗期 지식사회와 朱熹의 蘇學 평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참조.

64) 『論語·公冶長』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其由與.”

65) 紹聖 四年(1097) 12月 19일에 지은 시이다. 시의 첫 구절인 ‘勿驚脾減帶圍寬’은 소식이 소성 4년(1097)에 海南에서 지은 「아우 자유에게 수척해졌다는 소리를 듣고서(聞子由瘦)」라는 시의 구절을 말하는 것이다. 蘇過 撰/舒星 校補/蔣宗許·舒大剛等 注,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北京:中華書局, 2012, p.111.

66) ‘帶圍’란 허리를 한 바퀴 두른 길이를 말한다. 옛날에는 허리끈을 둘러 몸의 여위고 살찐 정도를 살폈다.

이 시에서는 유배생활을 통해 다소 수척해진 부친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그러나 쓰러진 소나무에서 다시 잎사귀가 피어나고, 마른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다소 고통스러울지라도 주어진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또한 하늘도 보답할 것이라고 축원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는 부친의 63세(1099) 생신을 축하하며 쓴 시이다.

「大人生日」<sup>67)</sup>

未試陵雲白日仙, 능운지기를 시험해보기도 전에 대낮에 승천한 신선<sup>68)</sup>이 되었다는 말  
此聲固已速郵傳. 이러한 소문은 분명 驛馬가 전하는 소식보다 빨랐다네.  
公在海南, 四方傳有白日上昇事. 공께서 해남에 유배되었을 때, 사방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陰功何止千人活, 묵묵히 쌓으신 공이 어찌 천 사람 살리는 데 그쳤으리오  
法眼要求一大緣. 법眼으로 큰 인연 구제하고자 하셨네.  
枕上軒裳真昨夢, 베개 말의 수레와 관복<sup>69)</sup> 진실로 지난밤의 꿈과 같았으니  
腹中梨棗是歸田. 신선의 도를 얻어<sup>70)</sup> 전원으로 돌아오셨네.  
他時漢殿觀遺鼎, 훗날 漢殿에서 遺鼎을 살펴보면  
猶記曾陳柏寢年. 제나라 환공이 柏寢에 누워 했던 말 여전히 기록되어 있으리라.<sup>71)</sup>

(二)

昔將直道破群穢, 그 옛날 올곧은 도리로 소인을 무찌르셨다던 무리들  
出走寧逃此日讒?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오늘날 참소만 남았는가?  
塞馬未還非叟病, 변방의 말 돌아오지 않은 것은 늙은이 잘못 때문이 아니요  
莫邪偶棄豈鉛鋸? 莫邪의 짝<sup>72)</sup>을 버렸으니 어찌 쇠덩이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長生有道因辭寵, 영원히 장수하는 도리 얻어 황제의 은총은 사양하노니  
造物無私獨與謙. 조물주는 사사로움 마음 없어 독실하고 겸손할 뿐이라네.  
從此軒裳真敝屣, 부귀한 인생 사시다가 헤진 짚신 신은 신세 되셨으니

67) 元符二年(1099) 12월 19일에 지은 시이다.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앞의 책, , pp.145-146.

68) 『東坡志林』에 해당 기록이 보인다. 본고의 제2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69) 軒裳은 지위가 높은 관리의 수레와 관복을 가리킨다.

70) ‘腹中梨棗’의 梨와 棗는 신선이 먹는 과일인 交梨와 火棗를 가리킨다. 즉, 신선의 도를 얻었음을 뜻한다.

71) 『四庫全書·子部·金樓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齊桓公이 柏寢에 누워서 管仲에게 말하였다. ‘미물이라도 갈 곳을 잃으면 과인이 가엽게 생각한다. 지금 모기가 앵앵거리니 배가 고픈 모양인 지라 과인이 걱정하노라.’ 이에 翠紗 장막을 열어놓으니 그 중에 예를 아는 놈은 공의 살을 물지 않고 물러갔으며, 그 중에 만족을 아는 놈은 공의 살을 물었다가 물러가고, 그 중에 만족을 알지 못하는 놈은 깊이 피를 빨아 먹고 마침내 배가 터져 죽었다. 이에 제환공이 ‘아! 백성들 역시 이와 같구나.’라고 하고는 마침내 조칙을 내려 만족할 때 그칠 수 있도록 살펴 닦으며, 백성들의 玉食을 절제하며, 백성들의 錦衣를 절제한다고 하니 온 나라가 크게 감화하였다.(齊桓公臥於柏寢, 謂仲父曰: “吾國富民殷, 無餘憂矣. 一物失所, 寡人猶爲之悵悵, 今白鳥營營, 饑而未飽, 寡人憂之.” 因開翠紗之幃, 進蚊子焉. 其蚊有知禮者, 不食公之肉而退, 其蚊有知足者, 齧公而退. 其蚊有不知足者, 遂長噓短吸而食之, 及其飽也, 腹脹爲之破潰. 公曰: “嗟乎, 民生亦猶是.” 乃宣下齊國, 修正足之鑒, 節民玉食, 節民錦衣, 齊國大化.)”

72) 고대 보검인 干將劍과 莫邪劍을 가리킨다. 춘추시대 명검을 주조했던 간장과 막야 부부가 오왕 闔閭를 위해 검을 주조하는데 첫물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에 아내 막야가 용광로에 몸을 던지자 첫물이 흘러나와 陽劍과 陰劍으로 나뉘어졌다는 고사가 『吳越春秋·闔閭內傳』에 보인다.



世間出世固難兼. 세속에 머물면서 그것으로부터 초탈하기란 진실로 어려워다.

제1수에서는 부친이 해남(담주)으로 귀양을 오게 되자 부친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도성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능운지기를 시험해보기도 전에 대낮에 승천한 신선이 되었다는 소문(未試陵雲白日仙)”이 역마보다 빨리 퍼졌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도 당시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 세력들이 소식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 부친이 쌓은 음공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음을 상기시키고, 관원의 신분으로 살았던 지난 날의 꿈을 미련 없이 접어두고 지금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신선과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강조한다.

제2수에서는 참소로 얼룩진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부친 스스로 황제의 은총을 사양한 채 영원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경지로 나아갔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담주에 온 이후 곤궁한 처지가 되어버린 부친의 형상을 묘사하며, 세속에 머물면서 그것으로부터 초탈하기란 진실로 어렵다는 도리를 언급함으로써 실의한 부친을 위로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는 부친 소식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64세(1100) 생신을 축하하며 남긴 시이다.

「大人生日」<sup>73)</sup>

七年野鶴困雞群,	칠년 동안 들꿩의 학처럼 닭 무리에게 곤궁함을 겪으셨으니
匪虎真同子在陳.	들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거늘 허허벌판에서 곤경을 당하신 공자와도 같으셨네. <sup>74)</sup>
四海澄清待今日,	바다가 맑은 것은 오늘을 기다렸기 때문이요
五朝光輔屬何人.	五朝 <sup>75)</sup> 를 크게 도운 것은 누구의 공인가?
從來令尹元無愠,	令尹은 기쁘거나 성난 기색 드러낸 적 없는데 <sup>76)</sup> (아버님도 그러하셨고)
豈獨原生不病貧.	어찌 (아버님께서) 原生 <sup>77)</sup> 이 가난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정도에 그치셨을까.
天欲斯民躋仁壽,	하늘이 백성을 仁壽 <sup>78)</sup> 의 경지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73) 元符三年(1100) 12월 19일에 지은 시이다.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앞의 책, p.160.

74) 공자가 衛를 떠나 陳으로 가던 도중 들녘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모시던 시종이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곤란을 겪었다. 이때 공자가 자로에게 “『詩經』에 ‘들소도 아니며 호랑이도 아니거늘 저 허허벌판을 따라다니게 하느냐’라고 하였는데 우리 道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詩云: ‘匪兕匪虎, 率彼曠野.’ 吾道非邪, 吾何爲於此.)”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史記·孔子世家』에 보인다.

75) 소식이 仁宗朝에 출사한 뒤, 각각 英宗, 神宗, 哲宗, 徽宗의 5대를 거쳤음을 말하는 것이다.

76) 『論語·公冶長』 편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보인다. 자장이 ‘영윤 자문은 세 번이나 벼슬에 나아가 영윤이 되었으되 얼굴에 기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고, 세 번이나 그것을 그만두었으되 성난 기색이 없었으며, 전임 영윤의 정사를 반드시 후임 영윤에게 일러주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쭙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스러웠다.’고 하였다.(子張問曰: ‘令尹子文, 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愠色, 舊令尹之政, 必以告新令尹, 何如?’ 子曰: ‘忠矣.’)

77) 가난함을 편안히 여겼던 공자의 제자 원헌(자사)을 가리킨다. 『莊子·讓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원헌(자사)이 노나라에서 움집 같은 오두막(環堵)에서 가난하게 살 때, 동문수학한 자공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수레를 타고 찾아가 그의 누추한 행색과 거처를 보고 ‘아,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괴롭게 사십니까?(噫, 先生何病)’라고 하자 원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재물이 없는 것은 가난하다고 하고, 배우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가난할 뿐 괴롭지는 않습니다.(憲聞之, 無財謂之貧, 學而不能行謂之病. 今憲貧也, 非病也.)’라고 답하였다.

卧龍寧許久謀身. 어찌 卧龍이 오래도록 一身만을 도모하도록 놔두겠는가.

이 시에서 소과는 부친 소식을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아 곤궁함을 겪어야 했던 공자에 비유하였다. 뒤이어 子文과 子思의 고사를 각각 인용하여 그들이 모두 시련을 겪으면서도 크게 노여운 기색이 없이 자신의 처지를 편안히 여겼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부친이 이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하늘이 斯民을 仁壽의 경지로 끌어올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위로하며 축원한다.

#### 4. 詩的 形象化를 통한 유언비어 비틀기, 그리고 坡仙의 탄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과의 시 속에서 부친 소식은 옥황상제를 모시는 신선,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쌓아 신선으로 거듭난 존재, 참소로 인하여 유배를 오게 되었지만 오히려 고차원적 경지에 오른 초인적인 형상으로 그려진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소과가 부친을 신선에 빗대어 쓴 이런 시들이 모두 소식의 2차 유배시기(惠·儋)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점과 소식의 별세 이후 소과의 시문에서 더 이상 도가나 신선과 관련된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sup>79)</sup>

그러면 소과는 왜 시를 써서 부친을 신선과 목민관이라는 형상으로 그려냈을까? 이에 대해 부친 소식이 도교에 흥미를 보이고 심취하였기에 아들 소과가 부친을 위로하기 위해 이러한 시를 지은 것<sup>80)</sup>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아들 소과가 실의한 부친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드리고자 부친의 생일마다 이러한 시를 지어 드렸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도 일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필자는 소과가 유배시기에 시를 써서 부친에게 목민관과 신선의 형상을 함께 부여한 데에는 위로의 목적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과가 부친 소식에게 신선(聖)과 목민관(俗)의 두 형상을 부여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黃庭堅(1045-1105)과 李之儀(1048-1117)의 문장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의 글에는 실마리가 될 만한 몇 가지 단서가 포착된다.

동과는 평생 도술을 좋아하여 들었다하면 직접 해보곤 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실행하지 않고 이내 버렸다. 도가의 도술에 대해 논한 문장 수천 자가 세상에 전하는데 모두 동과 스스로 하고 싶어 했던 것들에 관한 것이다. 동과의 문장은 모두 웅장하고 기이하며 탁월하여 인간 세상의 언어가 아니다. 일찍이 海上道人이 동과에 대해 평하기를 동과야말로 봉래, 영주, 방장산의 진정한 謫仙이라고 하였다. 세속에서 바야흐로 아주 짧은 시간의 곤궁함과 일말의 득실을 가지 고서 포퓰리즘하며 그를 고달프게 하는데, 정말로 어설프기 짝이 없다 하겠다. <sup>81)</sup>

78) 仁德이 있어 長壽함을 말한다. 『論語·雍也』 편에 “지자는 움직이고 인자는 고요하며, 지자는 즐겁고 인자는 장수한다.(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라고 하였다.

79) 실제로 부친 소식이 별세한 뒤, 소과가 쓴 시를 살펴보면 도교나 신선과 관련된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앞의 책, p.13.

80)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앞의 책, pp.12-13.

81) 黃庭堅, 「題東坡書道術後」 “東坡平生好道術, 聞輒行之, 但不能久, 又棄去. 談道之篇, 傳世欲數百千字,

東坡仙人은 岷峨의 남다른 자품을 타고났다네. 도력이 날로 높아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살지 않았네. 선대의 업을 이어 밝고도 성대하시니 태평성세를 기약하리라. 누가 그를 그만 두게 하고 큰 죄를 덮어씌웠나. 하늘은 그를 먼 곳으로 추방하였으나 그가 하는 말은 어찌면 高僧 從諗<sup>82)</sup>과 같은가. 그 소문 들은 자들 경외하나니 그를 본 사람 누군들 넘림치 않다고 하리오.<sup>83)</sup>

먼저 황정건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들어 소식을 신선에 가깝다고 평하였다. 첫째, 소식 이 도술에 흥미를 보여 스스로 이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는 점이다. 둘째, 소식의 문장이 기이하고 탁월하여 세상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이지의는 정치적 사건 때문에 참소를 당하여 먼 곳으로 유배를 가야 했던 소식의 인생에 대해 언급하며 ‘동과 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덮어씌웠으나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승화를 이루어냄으로써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소식은 도인법과 양생술에 흥미를 가지고 많은 문장을 남겼으며<sup>84)</sup>, 소식의 문장이 뛰어나 속세 사람의 수준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평어 역시 역대로 많이 있어왔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시를 지움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구절이 없거든, 시 짓는 이를 바꾸어 이백과 소식 두 사람을 데려와야 하리라.<sup>85)</sup>

태수 [遨頭] <sup>86)</sup>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니, 풍류와 문물이 蘇仙의 차지가 되었네.<sup>87)</sup>

子瞻의 문장과 의론은 당세에 홀로 뛰어나고, 풍격은 고원하니 진실로 謫仙人과 같아라.<sup>88)</sup>

東坡의 詞는 모두 세상을 벗어난 神仙의 모습을 닮아있다.<sup>89)</sup>

坡仙의 ‘宿麥連雲, 遺蝗入地.’<sup>90)</sup>의 시구를 능히 지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는가.<sup>91)</sup>

皆能書其所欲言. 文章皆雄奇卓越, 非人間語. 嘗有海上道人, 評東坡真蓬萊瀛洲方丈謫仙人也. 流俗方以造次顛沛, 秋毫得失, 欲軒輊困頓之, 亦疏矣哉.”

82) 당나라 고승 從諗禪師(778-897)를 가리킨다. 종심선사가 柏林禪寺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승려가 “達摩祖師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라고 묻자 “뜰 앞의 측백나무이다.(庭前柏樹子)”라고 대답한 公案(선종의 화두참구를 위한 문답)은 유명하다.

83) 李之儀, 「東坡先生贊」, “東坡仙人, 岷峨異稟. 道日而升, 弗類斯擯. 有繼皇皇, 期之奠枕. 誰其止之, 成是貝錦. 天作人遠, 言何從諗. 聞已聳然, 見孰不凜.”

84) 각주 36) 참조.

85) 黃庭堅, 「避暑李氏園二首」, “題詩未有驚人句, 會換謫仙蘇二來.”

86) ‘오두’는 본래 宋代에 太守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陸游의 『老學庵筆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옛날 중국 成都의 太守가 매년 4월 19일 浣花日이 되면 杜甫의 草堂인 滄浪亭에 나아가 잔치를 열었다. 이때 士女들이 木牀에 앉아 관람하였는데 이를 ‘遨牀’이라 부르고, 태수는 놀이의 우두머리라는 뜻에서 ‘遨頭’라고 불렀다.”

87) 黃庭堅, 「次韻宋懋宗三月十四日到西池都人盛觀翰林公出遨詩」, “還作遨頭驚俗眼, 風流文物屬蘇仙.”

88) 王闢之, 『澠水燕談錄』卷四「才識」, “子瞻文章議論, 獨出當世, 風格高遠, 真謫仙人也.”

89) 劉熙載, 『藝概』卷四「詞曲概」, “東坡詞具神仙出世之姿.”

90) 蘇軾의 시 「雪後書北臺壁」에 “황충의 알들이 천 척의 땅 속으로 들어갈지니, 몇 집의 보리가 하늘까지 자랄까.(遺蝗入地應千尺, 宿麥連雲有幾家.)”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인들의 평가와 관련하여 소식 스스로도 자신의 문학적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는 평생 흡족하게 이룬 일이 없는데 문장을 짓는 일만큼은 뜻한 바대로 되어서 필력이 曲折하고 내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스스로도 세상에서 문장을 짓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말하곤 하였다.<sup>92)</sup>

이 뿐만 아니라 황정견은 소식이 황주 유배기간에 지은 문장이 이미 속세의 수준을 뛰어넘어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였음을 천명하고 소식을 ‘동파도인’이라 칭하거나, 이백에 빗대어 ‘謫仙’이라 칭하기도 한다.

東坡道人이 황주에 있을 때 지은 문장은 말의 뜻이 고묘하여 속세에서 火食을 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의 경지가 아니다.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붓을 대면 한 점 속기도 없이 써내려 간다. 누가 능히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sup>93)</sup>

두 謫仙을 보지 못한 긴 그리움 修竹에 맡겨보네. 紫極宮<sup>94)</sup>을 빙빙 돌다가 明珠 한 움큼을 얻었네. 평생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없애고 싶어 하였으나 곳곳하게 외로운 운명 받아들였네.<sup>95)</sup>

이처럼 문인들이 소식을 신선 혹은 도인에 빗대어 표현한 데에는 실제로 소식이 도가의 술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있었으며, 소식의 문장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다는 점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평생 재주가 뛰어난 이백과 소식을 없애고 싶어하였다”, “소식에게 큰 죄를 덮어씌웠다”는 구절을 통해서도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서 세상으로 내려와 곤궁함을 겪는 ‘謫仙’의 이미지가 부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소과가 시 속에서 부친 소식에게 신선(聖)과 목민관(俗)이라는 두 상반되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를 적절히 변주한 데에는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살아있는 부친을 세상과 동떨어진 신선으로 만들어 그 존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의 의도를 간파하고, 오히려 세상의 시비와 이해득실로부터 벗어나 득도한 신선의 이미지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던 의지가 상당부분 작용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즉, 소과는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서도 오히려 그로 인한 고난과 수모를 겪어야 했던 부친의 인생궤적을 재조명하고, ‘神仙’과 ‘牧民官’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매몰된 부친의 존재감을

91) 郭應祥, 「踏莎行」, “宿麥連雲, 遺蝗入地. 坡仙有句誰能繼.”

92) 「文章快意」, “先生嘗謂劉景文與先子曰: 某平生無快意事, 惟作文章, 意之所到, 則筆力曲折, 無不盡意. 自謂世間樂事無逾此者.” 何薊 撰, 『春渚紀聞』, 中華書局, 1983, p.84.

93) 黃庭堅, 「跋東坡樂府」, “東坡道人在黃州時作, 語意高妙, 似非吃煙火食人語, 非胸中有萬卷書, 筆下無一點塵俗氣, 孰能至此.”

94) 李白이 지은 「尋陽紫極宮感秋作」의 시를 가리킨다. 시 가운데 “49년의 잘못,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네.(四十九年非, 一往不可復.)”라는 구절이 보인다.

95) 黃庭堅, 「次蘇子瞻和李太白潯陽紫極宮感秋詩韻追懷太白子瞻」, “不見兩謫仙, 長懷倚修竹. 行繞紫極宮, 明珠得盈掬. 平生人欲殺, 耿介受命獨.”

회복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실추되어야 했던 한 개인의 명예를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였던 일련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오대시안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기점으로 소식의 존재감을 고의적으로 말살시키거나, 반대로 회복시키려 하였던 두 집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기도 한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소식의 季子로 잘 알려진 소과의 시 가운데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며 남긴 「大人生日」시 11수를 분석하고, 이들 시에 나타난 부친 소식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오대시안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소식은 황주에 유배되는데 이 때 도성에는 소식이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유언비어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 이후 지방관으로 임직하던 소식은 철종 연간에 다시금 신법과의 타겟이 되어 해주와 담주에서 2차 유배를 겪게 되는데, 이 기간에도 소식과 관련된 유언비어는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소식은 이에 대해 글을 써서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헛소문이라고 일축한다.

소식의 말처럼 ‘신선’이라는 이미지가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소과가 시를 지어 부친 소식에게 신선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소과 역시 저들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야 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소식의 2차 유배기간 동안 유일하게 부친을 모셨던 인물이자, 부친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직접 전한 당사자이기도 한 소과는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목민관과 신선이라는 聖과 俗의 이미지를 적절히 변주하고,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실추되었던 소식의 존재감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한다. 이제 소과의 시 속에서 소식은 비방과 시비가 가득한 속세마저도 초월하여 고도의 정신적 승화를 이루어 낸 신선과도 같은 존재이자, 유배를 오기 전에는 善政을 행하였던 목민관의 형상을 획득함으로써 유언비어에 의해 무력화된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실추되어야 했던 한 개인의 명예를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했던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아울러 소식의 사후에 한·중·일 지식인들 사이에서 소식을 파선·소적선·옥당선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하여 형상화하는데 소과의 「大人生日」시가 하나의 근거가 되어준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 【참고문헌】

- 류종목 저, 『소식평전 - 팔방미인 소동파』, 도서출판 신서원, 2005.
- 蘇過 撰, 舒星 校補, 蔣宗許·舒大剛 等注, 『蘇過詩文編年箋注(上冊)』, 中華書局, 2012.
- 蘇軾 著, 金容표 역, 『동파지림』, 세창, 2012.
-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 평전』, 돌베개, 2013.
- 王水照 著, 『蘇軾研究』, 河北教育出版社, 1999.
- 河蓮 撰, 張明華 點校, 『春渚紀聞』, 中華書局, 1983.
- 歐陽莉, 「蘇過詩歌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全芳川, 「蘇過詩歌的地域文化特色」, 西南交通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 李景新, 「惠、儋瘴地上的特殊逐臣: 嶺海時期之蘇過論」, 『海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5.06.
- 이석희, 「南宋 孝宗期 지식사회와 朱熹의 蘇學 평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세진, 「14-16세기 조선과 일본의 蘇軾 관련 詩會와 그들이 공유한 蘇仙의 의미」, 『中國文學』, 제86집, 2016.03.
- \_\_\_\_\_, 「烏臺詩案의 社會文化적 含意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过蘇過, 蘇軾, 烏臺詩案, 坡仙, 東坡仙人, 東坡道人		
Key Words	영문	Su-Guo, Su-Shi, Taoist Hermit, Poetry, Literary Embodiment		
<div><div><div><div><div><div><b>A Study on the Shape of Su-Shi(苏轼) in Su-Guo(苏过)'s Poems</b></div><div><b>: in the Light of Literary Imagery Associated with Political Events(乌台诗案)</b></div></div></div><div><div>Jeon, Ga-Ram</div><div>In this paper, seven poems of 「Father's birthday(大人生日)」 written in celebration of his father's birthday among Su-Guo(蘇過)'s poems, well known as the son of Su-Shi(蘇軾), were analyzed, and the figures of Su-Shi(蘇軾) revealed in these poems were examined.</div><div>As he experiences exile related to political events, Su-Shi(蘇軾) suffers from false rumors that he has become a Taoist hermit. If, as Su-Shi(蘇軾) said, the image of “Taoist hermit” was created to slander him, how can Su-Guo(蘇過) interpret the poem that gave her father an image of Taoist hermit?</div><div>Su-Guo(蘇過), who delivered the false rumors directly to his father, expresses his father's position in connection with political events by properly transforming the two images of local governor and Taoist hermit, and reveals that he has become a free man, transcending the advantages and disputes of the world, even though he has been exiled from exile due to unfair partisan strife.</div><div>Now in Su-Guo(蘇過)'s poetry, Su-Shi(蘇軾) is a Taoist hermit who has achieved a high degree of spiritual sublimation, transcending the world full of slander and disputes. It is also found that by obtaining the image of an official who had done good politics before going through a political event, he is recovering his presence which was incapacitated by false rumors.</div></div></div></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전가람 / 田가람 / Jeon, Ga-Ram		
	소 속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dominica85@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19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5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